

보도시점 2026. 4. 15.(수) 09:00 배포 2026. 4. 15.(수) 09:00

취업자수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고용률·경활률 3월 기준 역대 최고

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중심 30만명대 증가세 유지 중
- 건설업·제조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은 지속
- 민생안정 등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하고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조속히 마련

① '26.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.7%로 전년대비 +0.2%p 상승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69.7%로 전년대비 +0.4%p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4.6%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, 실업률은 3.0%로 △0.1%p 하락했다.

* 3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2.5 → **62.7** <경활률> 64.6 → **64.6** <실업률> 3.1 → **3.0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1.0%, +0.6%p) · 40대(80.5%, +1.1%p) · 50대(77.3%, +0.7%p) · 60세 이상(46.5%, +0.1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청년층(43.6%, △0.9%p)은 하락했다.

○ 15세 이상 경활률(경활률은 '25.3월과 공동 1위) · 고용률은 3월 기준 역대 1위이며, 15~64세 고용률도 3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0.6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20만명을 상회했으며, 1~3월 기준으로도 18.3만명 증가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3)19.3 (9)31.2 (10)19.3 (11)22.5 (12)16.8 ('26.1)10.8 (2)23.4 **(3)20.6**

○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3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2)57.5 ('23)38.5 ('24)23.9 ('25)49.2 ('26.1)25.6 (2)37.4 **(3)31.6**

-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(△10.5→△6.1만)은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(△4.2→0.3만명) 증가 전환 등 최근의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.

- 운수창고(8.1→7.5만)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명절이동효과 종료 등으로 예술여가(7.0→4.4만)는 증가폭 축소, 도소매(2.2→△1.8만)는 감소 전환했다.
- 제조업(△1.6→△4.2만명)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심리가 둔화되며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 반면, 건설업(△4.0→△1.6만명)은 완만한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- 지위별로는 상용직(15.8→14.0만명)·일용직(3.9→3.2만명)은 증가했으나, 임시직(0.8→△5.9만명)은 감소 전환했다.

③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
 ↳ <전년비, 만명> ('25.3) 5.2 (10)△0.9 (11)0.7 (12)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

④ 4월 이후로는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·산업 전반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민생 안정, 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 청년의 취업,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, 일 경험 제공, 회복 지원 등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.
- AX·GX 등 초혁신경제 구현, 지방주도 성장 등 우리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력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

1. '26.3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2.7% 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6% 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3.0%, 취업자수 +20.6만명 증가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2.7%로 +0.2%p 상승(역대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69.7%로 +0.4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2/4)63.5 (3/4)63.5 (4/4)62.7 ('26.1)61.0 (2)61.8 (3)62.7
 고용률(15-64세, %): ('25.2/4)70.2 (3/4)70.2 (4/4)70.0 ('26.1)69.2 (2)69.2 (3)69.7

○ 경제활동참가율 64.6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99.6월~)

* 경합률(15세+, %): ('25.2/4)65.4 (3/4)64.9 (4/4)64.6 ('26.1)63.6 (2)64.0 (3)64.6

○ 실업률은 3.0%로 △0.1%p 하락(³월 기준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2/4)2.8 (3/4)2.2 (4/4)2.9 ('26.1)4.1 (2)3.4 (3)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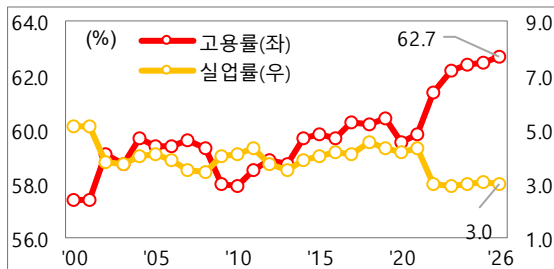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20.6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0.7 (3/4)21.6 (4/4)19.5 ('26.1)10.8 (2)23.4 (3)2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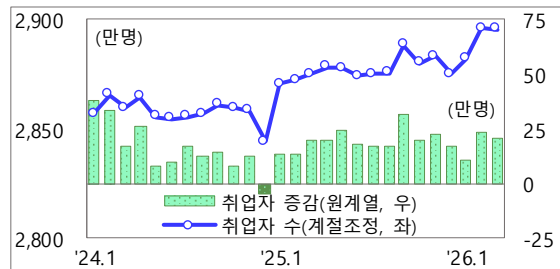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△0.1만명 감소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5.2/4) 4.2 (3/4) 2.8 (4/4)△0.2 ('26.1)6.9 (2)14.1 (3)△0.1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3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, 제조업 감소폭 확대, 건설업 감소폭 축소

○ (서비스) 30만명대 증가세 유지중이나 폭은 다소 축소(37.4→31.6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55.0 (3/4)51.1 (4/4)46.7 ('26.1)25.6 (2)37.4 (3)31.6

* 공공복지 외 서비스전년비, 만명: ('25.2/4)29.5 (3/4)22.0 (4/4)20.9 ('26.1)11.2 (2)11.6 (3) 9.9

- 보건복지(28.8→29.4만)는 돌봄수요 증가,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 등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2.2 (3/4)29.0 (4/4)26.0 ('26.1)18.5 (2)28.8 (3)29.4

- **운수창고**(8.1→7.5만)는 증가세 지속. 다만 명절이동효과 종료,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**예술여가**(7.0→4.4만) 증가폭 축소, **도소매**(22→△1.8만) 감소 전환

- *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1.1 (3/4) 1.4 (4/4) 4.2 ('26.1) 7.1 (2) 8.1 **(3)7.5**
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8 (3/4) 1.3 (4/4) 3.4 ('26.1)2.3 (2) 2.2 **(3)△1.8**
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7 (3/4) 4.1 (4/4) 6.2 ('26.1) 4.5 (2) 7.0 **(3)4.4**
- * CSI(장기평균=100): ('25.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6.1)110.8 (2)112.1 (3)107.0

- **전문과학**(△10.5→△6.1만) 감소폭 축소, **정보통신**(△4.2→0.3만) 증가 전환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

- 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1.1 (3/4) 5.0 (4/4)△1.9 ('26.1)△9.8 (2)△10.5 **(3)△6.1**
 ↳전월비로는 '25.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(전월비(만명): ('26.1)△3.2 (2)△1.6 (3)2.9)
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4.7 (3/4)△0.4 (4/4) 0.9 ('26.1)△2.1 (2)△4.2 **(3)0.3**

○ **(제조)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,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** 등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**감소폭 확대**(△1.6→△4.2만명)

-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9.1 (3/4)△6.7 (4/4)△5.2 ('26.1)△2.3 (2)△1.6 **(3)△4.2**
-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4)8.1 ('25.9)△6.1 (10)13.9 (11)12.8 (12)8.6 ('26.1)13.8 (2)49.3 (3)41.9
- * 제조업 업황전망 BSI(장기평균=100): ('25.10)68 (11)71 (12)71 ('26.1)71 (2)72 (3)77 (4)71

○ **(건설) 건설경기 회복 흐름** 등으로 **감소폭 축소**(△4.0→△1.6만명)

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1.8 (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)△2.0 (2)△4.0 **(3)△1.6**
- 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5.1/4)△7.2 (2/4)△2.6 (3/4)△0.8 (4/4)△4.1 ('26.1)△7.8 (2)19.5

○ **(농림) 농가인구 감소** 등 구조적 감소세 지속되는 가운데 **전년 기저효과**(^{25.2월}△1.9→^{3월}△7.9만명) 등으로 **감소폭 축소**(△9.0→△5.8만명)

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3.7 (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)△10.7 (2)△9.0 **(3)△5.8**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8.1%(보합), 청년층 제외 고용률 상승**

○ **(지위) 상용직 증가세 지속**(+14.0만명) · **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**, **임시직은 감소 전환**(△5.9만), **일용직 증가폭 축소**(+3.2만)

- * 상용직 비중(2월, %): ('00)30.3 ('05)34.9 ('10)42.5 ('15)48.5 ('20)54.7 ('25)58.1 **(26)58.1**
 임금근로자 증감(2월→3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15.8→**14.0** <임시>0.8→**△5.9** <일용>3.9→**3.2**

- **비임금근로자**(2.9→9.3만명)는 **고용원有**(6.0→10.5만명) **자영업자** 증가, **무급가족종사자**(△4.1→△1.2만명)는 **감소폭 축소**

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2→3월): <고용有> 6.0→**10.5** <고용無> 1.0→**0.0** <무급> △4.1→**△1.2**

○ (연령)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, 청년층은 하락

(3월 기준)	전체	청년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인구(전년비, 만명)	+24.1	△16.2	+8.3	△11.3	△6.3	+49.5
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	+20.6	△14.7	+11.2	△0.5	+0.5	+24.2
고용률(% , %p)	62.7 (+0.2)	43.6 (△0.9)	81.0 (+0.6)	80.5 (+1.1)	77.8 (+0.7)	46.5 (+0.1)

- 청년층 고용률(43.6%, △0.9%p) 하락, 실업률(7.6%, +0.1%p) 상승

(%, %p)		'25년	2/4	3/4	4/4	'26.1월	2월	3월
고용률	청년	45.0 (△1.1)	45.7 (△0.9)	45.3 (△1.1)	44.4 (△0.9)	43.6 (△1.2)	43.3 (△1.0)	43.6 (△0.9)
	20初	43.6 (△1.5)	44.5 (△1.5)	44.8 (△0.8)	42.6 (△1.3)	41.3 (△2.0)	40.3 (△2.0)	39.8 (△2.5)
	20後	71.8 (△0.7)	72.5 (△0.2)	71.8 (△0.7)	71.5 (△0.7)	69.9 (△1.4)	70.4 (△0.5)	71.4 (△0.1)
실업률	청년	6.1 (+0.2)	6.7 (+0.1)	5.1 (+0.2)	5.7 (+0.1)	6.8 (+0.8)	7.7 (+0.7)	7.6 (+0.1)
	20初	6.6 (+0.3)	7.5 (+0.3)	5.3 (+0.7)	5.4 (△0.4)	6.5 (+0.3)	8.8 (0.0)	9.4 (+0.2)
	20後	5.9 (+0.3)	6.4 (+0.2)	5.1 (+0.1)	5.8 (+0.2)	6.7 (+0.8)	7.1 (+0.8)	6.9 (+0.1)

- 청년층 쉬었음(40.2만명, △5.3만명)은 전년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8)44.6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3월 13.9%, 109.4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5%p, △6.4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4.5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3월 기준, %)

(3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20.5 (14.5)	142.8 (16.2)	127.4 (14.8)	116.0 (13.7)	111.4 (13.5)	115.8 (14.4)	109.4 (13.9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31.1 (3.7)	42.6 (4.8)	30.9 (3.6)	30.0 (3.5)	26.3 (3.2)	28.9 (3.6)	28.0 (3.6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8.3 (5.8)	58.7 (6.7)	54.2 (6.3)	45.2 (5.3)	44.8 (5.4)	45.4 (5.7)	41.2 (5.2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1.1 (4.9)	41.5 (4.9)	42.3 (4.9)	40.8 (4.8)	40.3 (4.9)	41.5 (5.2)	40.2 (5.1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6 (4/4)0.2 ('26.1)0.5 (2)0.3 (3)0.6 [81.0%]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7 (4/4)1.0 ('26.1)1.2 (2)1.2 (3)1.1 [80.5%]

-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△0.2 (3/4) 0.1 (4/4) 0.3 ('26.1) 1.0 (2) 0.6 (3) 0.7 [77.8%]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8 (3/4) 0.9 (4/4) 0.5 ('26.1) △0.5 (2) 0.5 (2) 0.1 [46.5%]

2. 평가 및 대응

□ **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, 경찰률·고용률 역대 최고**
다만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 속 제조·건설·청년 등 어려움 지속

- 서비스업은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도소매·예술
여가·운수창고 등 내수연관업종 중심으로 2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
 - 전문과학은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은 증가전환 하는 등 최근
지식기반서비스업의 조정 흐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
 - 보건복지업은 직접일자리 효과 등으로 증가세 지속
-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, 기업심리 약화 등으로
감소폭 확대, 건설업은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
- 청년은 정보통신·숙박음식·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
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 - 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3)45.5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**(3)40.2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3) 5.2 (10)△0.9 (11)0.7 (12)0.0 ('26.1) 3.5 (2)△2.0 **(3)△5.3**
- 4월은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 이어가겠지만, 중동전쟁 상황에
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 상존

□ **중동전쟁에 따른 경제·민생 어려움 대응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하고,**
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마련·발표 등 취약부문 고용상황 개선 노력 강화

-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용의 하방요인이 되지 않도록
민생안정·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예산*을 신속히 집행
 - *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(수도권10만원, 비수도권15만원, 인구감소20~25만원), 수출 정책금융 공급(7.1조원) 등
- 청년의 취업·사회진출 지원 위해 취업역량 강화, 일경험 제공,
회복지원 등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을 4월 중 마련·발표
- AX·GX 등 초혁신경제 구현, 지방주도 성장 등 우리경제 대도약
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력 개선노력 병행